

구례 다랑이논에 스며든 황금빛 가을



8일 구례군 산동면 사포마을에 다랑이논이 가을 수확을 앞두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무등산 원효사 지구 이전사업 본격 추진

개발 축소·경관 보호 절충

개발이나 경관 보존이냐를 두고 관련 부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8일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인 광주시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사지구 이전사업 회의를 열고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절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두고 공원녹지과는 자연·문화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과는 이런 자원을 최대한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자며 이견을 보여왔다. 무등산 난개발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데다 이전하는 상가의 영업권 보존을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부서간 의견 절충이 쉽지 않았다. 또 광주호와 가사문화권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와 체험시설, 공연장 등 시설물을 최대한 줄이고 이전 사업부지 인근 광주호와 담양가

사문화권의 자연·문화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내용의 절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광주호와 가사문화권 인근 17만㎡ 부지에 398억원을 들여 2020년 말까지 원효사 시설과 상가(53개)를 집단 이전하고 무등산 생태와 관련한 전시·홍보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주거복합단지, 이벤트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 기관인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을 두고 해당 부서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3월부터 용역이 중단된 상태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표류하면서 상가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더는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만간 절충안을 확정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에 착수, 오는 2021년에 부지 조성 및 분양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사 부족 전남, 암 발생률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암발생 532명 최고·치료 가능 사망률 54%

의사 1명 당 책임병상 13.3개·입원환자수 207명 전국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자료

의사가 부족한 전남지역에서 암 발생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 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의료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다.

전남지역 의사는 모두 3115명으로, 인구 1000명당 1.6명 꼴이었다. 의사 1명이 책임지는 병상 수는 13.3개이며, 입원환자 수는 2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는 의사 1명이 책임지는 병상 수는 11.6개, 입원환자 수는 101명이었다. 서울은

이보다 적은 의사 1명이 2.9개 병상에 52명의 환자를 책임진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명이 책임지는 병상 차이는 4.6배, 입원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났다.

시도별 면적을 의사 수로 나눈 면적대비 의사 밀집도의 경우 전남은 의사 1명이 3951㎡의 면적을 책임져야 한다. 서울(20㎡)과 전남의 차이는 197배에 달한다. 광주(249㎡)와도 16배 차이가 났다. 도시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농촌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는 것이다.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는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률 등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 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했다.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자 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

았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54%로 서울(44.6%)과 9.4%포인트 격차가 났다.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서울에 있었다면 살 수 있는데 전남이어서 숨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국가 30개국 중 꼴찌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었었다.

윤소하 의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국립 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 의과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 운영 등을 제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국 핵 사찰단 북한 풍계리 간다

청와대 "완전 폐기여부 검증"

폼페이오 "핵 협상 중대 진전"

청와대는 8일 미국 사찰단이 풍계리 핵 시험장이 완벽히 폐기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브리핑에 대한 사실 관계 요청에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풍계리에 사찰단이 갈 예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확인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헤더 나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 면담 자리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폼페이

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계리 핵시험장은 북한이 이미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폐기한 바 있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북미가 왜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참관을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저희 정부가 먼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4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8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쓰실한 한글날
- 우리말 파괴 정부·지자체가 주범 ▶6면
KIA, 가을야구 위한 한 판 승부
- 오늘 롯데 홈구장 쳐들어간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율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